

# 宋代 학술 필기와 洪邁의 《容齋隨筆》

安 芮 璿\*

## <목 차>

1. 들어가며
2. 宋代 학술 필기의 성행
3. '隨筆'의 의미-에세이로서의 '수필'과 홍매의 '수필'
4. 《容齋隨筆》의 학문적 지향
5. 나오면서

## 1. 들어가며

송대 문인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발굴해냈다. 詩나 詞의 영역은 물론이고 文을 쓰는데 있어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筆記이다. 필기는 그 내용에 따라 雜史軼事類, 學術雜考類, 隨筆雜記類로 나눌 수 있다. 雜史軼事類는 '역사의 보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조정의 대사, 황제, 저명인들의 사건과 언행을 주로 기술하거나, 혹은 작자가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속에서 보고 들은 소소한 사건과 일화를 기록한 것이다. 隨筆雜記類는 일상의 단상과 정취를 기록한 것으로 개인성과 서정성이 농후하다. 學術雜考類는 주로 독서의 과정에서,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얻은 심득과 단상을 기록한 것이다.<sup>1)</sup> 치열하고 진지한 학문과 가볍고 자유로운 필기체

\* 고려대 중문과 강사.

1) 필기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설이 분분하다. 본고에서 雜史軼事類, 學術雜考類, 隨筆雜記類로 삼분한 것은 필자가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를 참조, 보완하여 도출한

글쓰기의 만남, 이는 송대 이후 학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였던 학문의 한 방법이었으며, 오늘날 학자의 글쓰기에서도 유효하다. 본고는 이를 ‘학술 필기’라는 용어로 포괄하고자 한다.

학술 저술의 한 방법으로서 필기가 유행한 것은 송대부터로 그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南宋 洪邁의 《容齋隨筆》이다. 《용재수필》은 홍매(1123-1202)<sup>2)</sup>가 독서하며 얻은 지식과 심득을 기록하여 엮은 것으로 《隨筆》 16권, 《續筆》 16권, 《三筆》 16권, 《四筆》 16권, 《五筆》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29조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고증과 변증이 정확하고 치밀하여 남송 필기 중에 최고”라고 평가된다.<sup>3)</sup> 《오필》을 제외하고는 매 편마다 서문이 있는데 《사필》의 서문에서 “처음 내가 용재수필을 썼을 때는 장장 18년이 걸렸고, 《이필》은 13년, 《삼필》은 5년, 《사필》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sup>4)</sup> 이와 《오필》을 합쳐본다면 근 40년의 세월을 《용재수필》과 함께 한 셈이다. 마흔 살 즈음부터 시작된 집필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용재수필》에 대한 연구는 문학 외에 역사학, 문헌학, 고증학, 훈고학, 어학, 민속학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sup>5)</sup> 하나의 원전을 중심으로 이처럼

필기의 유형 분류이다. 이에 대해서는 《宋人筆記研究》(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참조.

- 2) 洪邁의 字는 景廬, 號는 容齋, 野處이며, 諡號는 文敏公으로 鄱陽(江西省 樂平市)사람이다. 남송 고종 紹興 15년(1145)에 博學宏詞科에 급제한 후 起居舍人, 中書舍人 兼侍讀, 直學士院, 翰林學士 등의 관직을 지냈으며, 泉州, 吉州, 贛州, 建寧, 婺州, 鎮江, 紹興 등에서 지방관을 지냈다. 당시 홍매 3형제는 당시 ‘三洪’으로 널리 알려질 정도로 조정과 문단에서 학문과 문장으로 손꼽히던 수재들이었다.(《송사》: 三洪文名滿天下) 홍매는 방대한 서적을 섭렵한 학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저작으로 지괴 소설집인 《夷堅志》와 唐詩 선집인 《萬首唐人絕句》, 학술 필기인 《容齋隨筆》, 문집으로 《野處類稿》가 있다. 30여 년 동안 사관으로 지내면서 복종 神宗, 哲宗, 徽宗, 欽宗 4대 왕조의 역사인 《四朝國史》와 《欽宗實錄》, 《哲宗實錄》을 집필하기도 했다.
- 3) 《四庫全書總目》(中華書局, 1995)권118《容齋隨筆》제요: 南宋說部, 終當以此爲首焉.
- 4) 《容齋四筆》序: 始予作《容齋隨筆》, 首尾十八年, 《二筆》十三年, 《三筆》五年, 而《四筆》之成, 不費一歲. 身益老而著書益速, 蓋有其說.
- 5) 《容齋隨筆》의 연구로는 문학 이외에도 胡穎, 《容齋隨筆文獻學成就探研》(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顧娟《洪邁史學研究》(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陳兵, 《容齋隨筆的民俗材料研究》(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程序, 《容齋隨筆的語言研究價值》(現代語文, 2009年 1期), 《容齋隨筆的修辭論研究》(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등이 있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용재수필》이 그만큼 광범위한 학문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재수필》의 학술적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본고는 각도를 달리하여 학술 필기의 문체적 특징과 중국 학술사에서 이런 ‘필기체’의 연구노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용재수필》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용재수필》은 학술필기의 史的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기적 저작이다. 唐代에도 필기체를 학문과 연계한 글쓰기가 있기는 했지만 수량과 영향 면에서 미미하였던 반면, 宋代에는 학술필기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용재수필》의 출현이기 때문이다.

## 2. 宋代 학술 필기의 성행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술필기라는 용어에 대해 국문학계에서는 ‘筓記體 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筓記’는 ‘札記’라고도 하며 독서 과정에서의 요점이나 심득을 자유롭게 기록한 글을 가리킨다. 그런데 ‘차기’는 수필, 필기, 잡기처럼 문체의 스타일을 지칭하므로 ‘차기체 필기’라고 하면 다소 의미가 중첩된다. 필기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술 필기’라는 용어가 적합해 보인다. 이 외에 고증류 필기, 독서 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증의 내용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고증 이외의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주로 독서 과정에서의 심득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전부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고증의 과정이든, 독서의 심득이든 모두 공부의 소산이므로 ‘학술 필기’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sup>6)</sup>

6)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 언제부터 왜 ‘筓記體 필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짐작컨대,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조선 후기 清代로부터 수입된 서적의 영향을 받아 유행된 것으로 청대 학자와 문인들이 이 부류의 글쓰기를 ‘讀書筓記’라고 지칭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한다. (차기체필기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진재교, <19세기 차기

학술 필기는 《四庫全書》에서 주로 子部 雜家類의 ‘雜考之屬’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편수관들은 이 부류의 저작을 이렇게 개괄하였다.

경전의 의미를 고증한 책은 《白虎通義》에서 시작되었으며 蔡邕의 《獨斷》과 같은 것들은 모두 그 지류들이다. 唐代에 《資暇集》, 《刊誤》 등이 출현하면서 점차 많아졌다. 宋代에 이르러 《容齋隨筆》과 같이 상당한 분량의 필기들이 출현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經史子集을 아우른 것으로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다.<sup>7)</sup>

班固의 《白虎通義》와 蔡邕의 《獨斷》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필기체로 분류할 수 없는 정식 학술 저서이므로 같이 논할 수 없다. 唐代 李匡父의 《資暇集》, 李涪의 《刊誤》 등이 초기적 형태의 학술필기인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수량적으로 많지도 않았고 보편화되지 못했다. 南宋에 이르러 《용재수필》과 같은 거질의 학술 필기가 출현하면서 지식인에게 전반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경전의 의미를 고증하는 것에 국한되었던 내용에서 경사자집을 아우르며 확장되었다. 경사자집을 모두 포괄하였기에 그 내용은 ‘雜할 수밖에 없다. 필기체로 학문적 견해를 개진하였더라도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면 《사고전서》에서는 필기의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北宋 劉敞의 《春秋意林》도 ‘隨筆筭記’이고, 南宋 黃震의 《黃氏日抄》도 ‘是編以所讀諸書隨筆筭記’이지만 이들은 각각 經部 春秋類와 子部 儒家類로 분류되어 있다.<sup>8)</sup> 모든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지적 편력을 반영하는 ‘雜이 송대 학술필기를 규정하는 특징 중 한 가지 이다. 학술필기의 형식은 唐代에 시작되었지만 이를 학문적 방법론으로 끌어들이 자신들의 학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송대 지식인들이었으며 이러한 장르를 흥매의 《

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智水拈筆》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36집, 2005) 참조) 중국에서는 이 부류의 저작에 대해 學術筆記, 考據筆記, 讀書筆記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 중에서 ‘학술’이라는 표현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아 이를 채택하였다.

7) 《四庫全書總目》 권120雜家類四·雜考之屬·後案：考證經義之書，始於《白虎通義》，蔡邕《獨斷》之類，皆沿其支流，至唐而《資暇集》、《刊誤》之類，爲數漸繁。至宋而《容齋隨筆》之類，動成巨帙，其說大抵兼論經史子集，不可限以一類。中華書局，1995。1032쪽.

8) 《四庫全書總目》 권26 《春秋意林》제요, 권92 《黃氏日抄》 제요 참조.

용재수필》이 선도하였다고 본 것이다.

남송 嘉定16년(1223), 홍매의 姪孫 洪汲이 쓴 《용재수필》의 발문에 “사대부들이 다투어 전하고자 했다(學士大夫爭欲傳襲)”<sup>9)</sup>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홍매는 자신의 의구심을 가진 문제나 대상에 대해 최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식의 습득에 상당히 유용했을 것이다. “실로 유생의 학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sup>10)</sup>, “고증이 정확하고 의론이 고간하여 독서와 작문의 법이 여기에 모두 담겨있다”<sup>11)</sup>, “학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집집마다 한 권씩 두어 독서와 글을 짓는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sup>12)</sup>는 전인의 평가는 《용재수필》의 유용성과 영향력을 대변한다. 그러나 학문에 도움이 되는 독서물이라는 점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용재수필》이 이렇게 많은 독자를 확보하면서 그 학문적 방법을 모방한, 즉 필기체로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표출하고 타인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하는 저작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張溍의 《雲谷雜紀》의 後序를 보면,

어느 날 홍매의 《용재수필》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한 논조가 종종 눈에 띄었다. …… 이러한 것들이 의심스럽지만, 홍매의 고증이 상세하지 않아 다만 홍매보다 늦게 태어나 홍매와 함께 논의를 펼칠 수 없음이 한스럽다. …… 의문 나는 것을 학식이 높은 선비에게 묻고 함께 논의하며 바로잡아 《수필》과 같은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고, 전에 기록해 두었던 것을 합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잡스럽고 두서가 없어 잡기라 하였다.<sup>13)</sup>

- 
- 9) 宋<洪汲跋>, 《容齋隨筆》下, 982쪽.  
 10) 宋<何異序>: 實爲儒生進學之地. 《容齋隨筆》下, 980쪽.  
 11) 明<馬元調序>: 其考據精確, 議論高簡, 讀書作文之法盡是矣. 《容齋隨筆》下, 984쪽.  
 12) 清, 耿文光《萬卷精華樓藏書記·跋洪邁容齋隨筆四筆自序》: 是書大有益於學問, 宜家置一編, 以爲讀書、作文之助. 《容齋隨筆》下, 963쪽.  
 13) 《雲谷雜紀》後序: 他日閱洪文敏公《容齋隨筆》, 往往多予所欲言者, ……如此之類亦疑, 公考之未詳, 深恨其生也晚, 不得陪公談塵, …… 蓋將識所疑而求諸博聞之士, 相與質正焉, 凡同于隨筆者不錄, 又往歲嘗紀所聞雜事數條, 因取而合爲一編, 雜然無復詮次, 故目之曰雜紀

이 외에 《褒貶間評》, 《野客叢書》, 《考古質疑》, 《賓退錄》, 《學齋佔畢》, 《困學紀聞》 등에서도 《용재수필》을 언급하며 박학과 정밀한 고증에 대해 칭송하거나 홍매의 견해에 반박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물론 이들 학술필기에서 《용재수필》의 학문적 견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영향관계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술필기가 시기적으로 《용재수필》 이후에 등장한다는 점, 《용재수필》이 남송 시기에만 이례적으로 7차례나 간행되어 여타 필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sup>14)</sup>, 남송 학술계와 문단에서 홍매의 지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학술필기'라는 새로운 학문 방법이 지식인들에게 보편화되는데 있어 《용재수필》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송대에 학술필기라는 새로운 학문 방법이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송대 지식인의 박학적 소양이다. 이전 지식인이 경전이나 역사, 문학 중 한 방면에 치우쳐 있던 반면, 송대 지식인은 제반 학문을 두루 섭렵한 박학을 추구했다.<sup>15)</sup> 歐陽脩은 경학 방면에서 疑古派의 대표라 할 정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개진하였고, 역사 방면에서도 《新唐書》와 《新五代史》의 正史 편찬에 참여할 만큼 학식과 소양을 인정받았으며, 문학 방면에서의 역할이야 말할 나위가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당시 조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았었다. 王安石, 蘇軾, 蘇轍은 경학 등 학술 방면과 정치, 문예 방면에서 부각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송대 지식인들은 학문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이나 기능적 방면에도 관심과 조예가 깊었다. 《夢溪筆談》의 저자 沈括에 대해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천문, 지방지, 악율과 역법, 음악, 의학, 점술에 통하지 않는 게 없다(博學善文, 於天文、方志、律曆、音樂、醫藥、卜算, 無所不通)"<sup>16)</sup>라고 한 것은 비단 심필뿐만이 아니라 송대 지식인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송대 지식인의 학문에 대한 관심의 광범위함은 清代 학자들이 추구했던 치밀

14) 中華書局本 《용재수필》의 前言에 의하면, 《용재수필》의 판본은 7종의 간행본이 있었다. (9쪽-10쪽 참조)

15) 陳植鏞, <論北宋知識分子的知識結構>, 《社會科學研究》, 1988년 제1기.

16) 《宋史·沈括傳》附沈括傳

한 고증학의 심도보다 정도에 있어서는 더하다고 평가된다.<sup>17)</sup> 이러한 다방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소양이 학술 필기의 유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 가지 대상과 주제를 갖는 전문 서적보다 모든 관심의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필기가 송대 지식인의 박학 추구 성향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위로는 육경과 여러 역사에서부터 아래로는 송대의 저술과 여러 名家를 섭렵하여 각각에서 의문이 나는 것을 짚어내어 상세하고 분명하게 고증하였으니 전인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sup>18)</sup>이라는 평가는 송대 학술필기의 공통적 성향이다. 《용재수필》 또한 “경사와 제자백가, 의학, 점복, 점성에 이르기까지 심득이 있으면 붓이 가는대로 기록”<sup>19)</sup>한 것으로 천문, 역법, 기상, 지리학, 생물학, 수학, 기계학, 선박, 건축,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섭렵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고 각 조목마다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필기야말로 박학을 추구하는 송대 지식인에게 적합한 장르였던 것이다.

둘째, 출판문화의 성황과 그로 인한 지식의 확산이다. 박학의 추구는 多讀으로 이어지며 이는 서적의 유통 정도와 불가분의 관계다. 북송 초기만 해도 《史記》, 《漢書》와 같은 서적조차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중엽 이후 도서 보급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sup>20)</sup> 《용재수필》이 백과사전처럼 다양한 학문 영역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은 학술 전반에 대한 관심과 공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적의 유통이라는 인프라가 갖춰진 시대라서 가능했던 것이다. 《용재수필》에서 인용한 사서와 문집은 총

17) 張舜徽, <論宋代學者治學的廣闊規模及替後世學術界所開關的新途徑>, 《張舜徽學術論著選》(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7), 184-185쪽. “宋代學者氣象博大, 學術途徑至廣, 治學方法至密, 凡舉清代朴學家所矜爲條理縝密, 義據湛深的整理舊學的方式與方法, 悉不能超越宋代學者治學的範圍.”

18) 《四庫全書總目》권118<考古質疑>제요: 其書上自六經、諸史, 下逮宋世著述諸名家, 各爲扶摘其疑, 考證詳明, 類多前人所未發.(1022쪽)

19) 《四庫全書總目》권118<容齋隨筆>제요: 其中自經史諸子百家以及醫卜星算之屬, 凡意有所得, 卽隨手筭記.(1010쪽)

20) 蘇軾, 《蘇軾文集》권11<李氏山房藏書記>(中華書局, 1996) 이 글은 소식이 41세(1076년)에 지은 것이다. 소식은 늙은 선비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하며 그 선비가 젊었을 때는 《사기》나 《한서》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자백가의 책이 하루 만장씩 전해지는 정도라며 책을 접하기가 용이해진 당시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준다.

250종에 달한다.<sup>21)</sup> 경전과 사서, 제자백가 서적, 저명 문인의 작품집은 물론이고 동시대에 세상에 나온 야사, 필기까지 읽어볼 수 있었다. 송 이전의 출판은 주로 경전과 역사가 주요 대상이었고, 문인의 작품집이 당시에 출판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송에 들어 출판의 속도는 빨라졌다. 《용재수필》의 경우, 필독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매보다 서상들이 먼저 출판을 해서 유통을 시킬 정도로 출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sup>22)</sup> 홍매와 동시대에 살았던 주희도 당시에 이미 《용재수필》을 읽을 수 있었다.<sup>23)</sup>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용재수필》이 남송 시기에 7차례나 간행되었고 동시대의 학술 필기인 《雲谷雜記》, 《鬻漏閒評》, 《野客叢書》, 《考古質疑》, 《賓退錄》, 《學齋佔畢》, 《困學紀聞》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확산이 빠른 사회 구조가 되었음을 반영한다.

셋째, 의론의 성행이다. 이는 송대 학술 전반에 유행하였던 疑經, 疑古의 풍조와 일맥상통한다. 陸游는 송대의 疑古 경향을 이렇게 개괄했다.

당나라와 송나라 초기 학자들은 孔安國과 鄭玄의 견해에 감히 의문을 갖지 못했으니 하물며 성인에 있어서랴. 慶曆 연간 이후, 여러 유학자들은 경전의 의미를 발명하였으니 이전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이 아니었다. 《周易》의 <繫辭傳>을 배척하고, 《周禮》를 헐뜯고, 《孟子》를 의심하고 《書經》의 <胤征>, <顧命>을 비난하고 《詩經》의 序를 배척하면서 경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傳注에 있어서랴!<sup>24)</sup>

21) 顧娟, 《洪邁史學綜論》(山東大學碩士論文, 2008), 10쪽.

22) 《續筆》序: 순희 14년 8월 나는 한림원에 있었다. 至尊壽皇皇帝(孝宗)의 연회를 모시게 되었는데, 황제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다. “근자에 무슨 재수필이라는 책을 보았네.” 나는 황송해하며 대답했다. “신이 지은 《용재수필》이란 책이옵니다. 불만한 것은 없습니다.” 효종께서는 “좋은 의론이 있더군” 나는 일어나 감사했다. 물러나 알아보니, 嫔女에서 출판한 것으로 상인들이 책방에서 파는 것을 귀인이 사서 궁궐에 들어갔고, 결국 황제께서 열람하시게 된 것이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다. (淳熙十四年八月在禁林日, 入侍至尊壽皇皇帝清閒之燕, 聖語忽云: “近見甚齋隨筆” 邁竦而對曰: “是臣所著《容齋隨筆》, 無足采者.” 上曰: “熙有好議論.” 邁起謝, 退而詢之, 乃嫔女所刻, 賈人販鬻于書坊中, 貴人買以入, 遂塵乙覽. 書生遭遇, 可謂至榮.)

23) 《朱子語類》권138 : “洪景虛《隨筆》中辨得數種偽書皆是”

24) 王應麟, 《困學紀聞》권8<經說>중 陸游의 언급. 唐及國初, 學者不敢議孔安國、鄭康成, 況聖人乎? 自慶曆後, 諸儒發明經旨, 非前人所及, 然排《繫辭》, 毀《周禮》, 疑《孟子》,



漢唐 시기, 경전과 주석은 의문을 품을 수 없는 절대적 권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송대 지식인들은 경전과 주석의 진위를 의심하며 오류를 지적하였고, 더 이상 학문에 있어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없게 되었다. 師法을 고수하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스승의 설에 증언부언하며 글자와 문구의 해석에 천착하였던 漢唐의 注疏學을 거부하고 직접 진위를 검증하고 오류를 규명하고자 했다. 경전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의고의 학풍이 학문 전체로 확장되면서 어떤 견해도 주장하고 토론하고 공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술적 풍토가 형성되었다. 자신의 학술적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학술필기다. 전문 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으며 필기는 당시 小說, 說部로 간주되었기에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른 주관이라 할지라도 부담 없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 견해를 필기의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한당의 주소학이라는 정통적이고 공인된 학설만이 인정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론 중심의 학술 풍토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隨筆'의 의미 — 에세이로서의 '수필'과 홍매의 '수필'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형식의 서정적 산문인 에세이에 해당하는 글을 '수필'이라 하며, 이 용어의 어원을 《용재수필》로 본다.<sup>25)</sup> 장르적 의미의 '수필'와

識《書》之<胤征>、<顧命>，黜《詩》之序，不難於議經，況傳注乎！（遼寧教育出版社，1998），190-191쪽.

25) 수필에 대한 국어에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느낌·기분·정서 등을 표현하는 산문 양식의 한 장르이다. 그것은 무형식의 형식을 가진 비교적 짧고 개인적이며 서정적인 특성을 가진 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필에 대한 소개에서 빠지지 않는 언급으로 사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수필을 설명할 때 《용재수필》의 제목과 서문을 함께 인용하고 있다.

홍매가 말한 ‘수필’은 같은 것인가?

홍매는 자신의 저작을 ‘수필’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이가 들어 습성이 게을러지고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생각이 가는 대로 써 내려갔으므로 두서가 없어 수필이라 했다.<sup>26)</sup>

‘생각이 가는 대로 두서없이 써 내려간’ 글. 이것으로 수필의 개념과 성격을 정의내리며 이런 자유로운 태도가 이후 수필적 글쓰기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비슷한 논조가 《三筆》의 서문에도 보인다.

한적하고 고요한 물가에서 좋은 경치를 다 구경하면서 시간을 즐기고 남은 겨를에, 때때로 붓을 잡고 책상에 기대어 생각이 가는 대로 써 내려간다. 아주 뛰어난 말은 없더라도 생각이 나면 바로 써 내려갔으니, 스스로 즐겁고자 한 것이다.<sup>27)</sup>

일견 생각의 흐름을 따라 자유롭게 써 내려갔다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수필’이라 지칭하는 글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홍매가 말한 ‘수필’과 에세이로서의 ‘수필’은 전혀 다른 맥락이다. 홍매의 논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습성이 게을러지고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말은 겸사다. 唐詩 만 수를 모아 《萬首唐人絕句》를 엮었고, 《자치통감》을 세 번이나 손수 썼으며, 《한서》를 백 번도 넘게 읽은 그다. 경전과 역사, 전고를 두루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과 만물의 변화까지 통달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박학다식은 당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다.<sup>28)</sup> ‘수필’이라는 말은 자신의 저서에 대한 겸사이자<sup>29)</sup> 후시 있을 수도 있는 오류에 대한 보충적 멘트로 자유롭게 가볍게 임했다는 의미이지 우리

26) 《隨筆》序: 予老去習懶, 讀書不多, 意之所之, 隨卽紀錄, 因其後先, 無復詮次, 故目之曰隨筆

27) 《三筆》序: 寬閒寂寞之濱, 窮勝樂時之暇, 時時捉筆据几, 隨所趣而志之, 雖無甚奇論, 然意到卽就, 亦殊自喜.

28) 《宋史·洪邁傳》: 邁兄弟皆以文章取盛名, 躋貴顯, 邁尤以博洽受知孝宗, 謂其文備衆體. 邁考閱典故, 漁獵經史, 極鬼神萬物之變.

29) 明<李瀚序>: 積廿餘年, 率皆成書, 名曰《隨筆》, 謙言順筆錄之云爾. 《容齋隨筆》下, 983-984쪽.

가 에세이에서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서문의 여유롭고 서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용재수필》은 학문적 담론을 중심으로 한 독서 노트이다. 때문에 《용재수필》에 대한 역대의 평가는 엄밀한 고증과 학술적 가치에 집중되었다. 경사자집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지식과 학문 세계, 정확한 고증과 간결한 의론은 歐陽脩와 曾鞏도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된다.<sup>30)</sup>

홍매의 집필태도, 즉 생각을 따라 두서없이 써 내려가다 보니 책으로 엮을 수 있는 분량이 되었다는 문구는 宋人의 학술 필기 서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투적 표현이다.

《野客叢書》 : 나는 간간이 좁은 식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두었다. 몇 년 사이에 분량이 많아졌다.<sup>31)</sup>

《學齋佔畢》 : 책을 읽다가 의문 나는 점이 생기면 그것을 생각해보고 얻는 것이 있으면 스승과 벗들에게 질문을 구하여 오류가 없으면 편하게 기록하였다. 오래되니 책이 될 만한 분량이 되었다.<sup>32)</sup>

《考古質疑》 : 오직 독서에 마음을 쏟아 심득이나 의심나는 바가 있으면 책에 뜻을 따라 기록하였다. 오랜 시간이 흐르니 책으로 엮을 분량이 되어 《考古質疑》라 이름 하였다.<sup>33)</sup>

《野客叢書》의 “隨意而書”, 《學齋佔畢》의 ‘隨而錄之’, 《考古質疑》의 ‘隨筆于冊’이란 표현은 홍매가 말한 “意之所之, 隨即紀錄”과 다르지 않다. 《용재수필》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涉史隨筆》 또한 ‘수필’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관심의 범위를 ‘역사’에 국한한 것으로 그 서문에서도 “간혹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록하였다(間有所見, 隨而筆之)”<sup>34)</sup>라고 했다. ‘수필’이지만 역

30) 周中孚, 《鄭堂讀書記》: 昔人嘗稱其考據精確, 議論高簡, 如執權度而稱量萬物, 不差累黍, 歐、曾之徒所不及也. 《容齋隨筆》下, 964쪽.

31) 《野客叢書》序: 僕間以管見, 隨意而書, 積數年間, 卷帙俱滿.

32) 《學齋佔畢》序: 凡讀書有疑, 隨即疏而思之, 遇有所得, 質之於師友而不謬也, 則隨而錄之, 積久成編.

33) 《考古質疑》序: 惟以讀書自遣, 所得所疑, 隨筆于冊, 久而成編, 目曰《考古質疑》.

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고전서》에서 ‘사평류’로 분류되었다. 홍매가 사용한 ‘수필’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겸사이자 ‘文’이라는 엄숙성으로부터 벗어나 편하고 가볍게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글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명칭 중 한 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홍매가 말한 ‘수필’을 오늘날 문학 장르로서의 ‘수필’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sup>35)</sup> 홍매가 말한 ‘수필’이라는 의미는 송대 필기의 제목으로 자주 사용되던 雜錄, 雜記, 筆談, 鎖語 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4. 《容齋隨筆》의 학문적 지향

‘수필’이란 용어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광범위한 학문 영역을 두루 섭렵하고 그 과정에서의 모든 심득, 의문, 검토의 과정과 결과를 편의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분류와 귀납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상당히 ‘雜’스러운 학문적 궤적은 분명한 의도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容齋隨筆》의 논의가 어느 방면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그가 말한 ‘수필’의 지향점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지식인들의 학문적 ‘수필’식 글쓰기를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오류의 발견과 규명

《용재수필》은 공부의 소산이다.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주제에

34) 《四庫全書總目》권44《涉史隨筆》제요.

35)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필’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서구의 에세이를 수입,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은 적용 범위에 따라 多種多彩하여 우리나라(일본)의 ‘隨筆’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부터 개념의 혼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서구의 에세이 장르를 ‘수필’이라 하지 않고 ‘小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김건곤, <한문학에서 수필의 개념과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36호, 1989년.

대해 소논문을 쓰는 것처럼 홍매는 학문 수양 과정에서의 의문과 추측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매 조목이 한 편의 소논문인 셈이다. 따라서 치밀한 고증을 거쳐 명쾌한 결론을 얻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측에 그치거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曾子와 그의 부친에 관한 일화에 대해 “이 사건은 실제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전국 시기 학자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맹자는 증거가 증석을 봉양하면서 술과 고기로 그의 마음을 봉양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말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에 그치기도 한다.<sup>36)</sup> 유명한 손빈과 방연의 최후 전쟁에 대해서는 “손빈이 방연을 이긴 일을 병가에서는 기발한 계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의심되는 점이 있다. …… 아마도 호사가 그렇게 꾸미고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일 뿐”<sup>37)</sup>이라며 객관적 증거보다는 정황과 개연성에 근거하여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적 엄정성과 정확성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오류를 입증하고 바로잡는다.

세상에 전해지는 《雲仙散錄》, 《老杜事實》, 《開元天寶遺事》 등은 모두 가소로운 책들이다. 그러나 사대부들 중에는 간혹 그것을 믿는 자들도 있다. 《노두사실》은 蘇軾이 편찬한 것이라고 하여 근자에 成都에서 간행된 두보집의 주석에서까지 인용되고 있다. 孔傳은 《六帖》의 속편을 지으면서 당나라의 일사를 수집하는데 특히 공을 들였다. 그러나 《운선산록》의 기록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그 책에 오점을 남겼다. 《개원천보유사》는 王仁裕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왕인유는 五代 사람으로 비록 문장에 기골이 없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 몇 가지 부분을 재미삼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반박조차도 할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후학들이 오해하고 의심할 만한 것들이다.<sup>38)</sup>

36) 《三筆》권12 <曾皙待子不慈>: 予竊疑無此事, 殆戰國時學者妄爲之辭. …… 孟子稱曾子養曾皙酒肉養志, 未嘗有此等語也.  
 37) 《隨筆》권13 <孫臏滅龐>: 孫臏勝龐涓之事, 兵家以爲奇謀, 予獨有疑焉. …… 殆好事者爲之而不精考耳.  
 38) 《隨筆》권1 <淺妄書>: 俗間所傳淺妄之書, 如所謂《雲仙散錄》、《老杜事實》、《開元天寶遺事》之屬, 皆絕可笑. 然士大夫或信之, 至以《老杜事實》爲東坡所作者, 今蜀本刻杜集,

後山 陳師道の 《談叢》 6권의 문장은 뛰어나고 간결하여 힘이 넘친다. 그러나 기록된 송나라의 역사는 고증이 결여되어있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자유롭게 분석해보겠다. …… 이는 전인들이 국가에서 편수한 正史를 소장할 수 없었기에, 호사가들이 마음대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꾸며냈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 사실처럼 여겼기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책을 범하게 된 것이다. 진사도의 책은 분명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기록이 천년의 의혹을 남길 것이기에, 진위를 판별하고자 이 글을 썼다.<sup>39)</sup>

첫 번째 예문은 王仁裕가 지었다는 《開元天寶遺事》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왕인유의 작품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고, 두 번째는 陳師道の 《後山談叢》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모두 관련 자료를 섭렵하여 자신의 견해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이처럼 철저하고 정확한 고증 때문에 《용재수필》은 여타 宋人 필기에 비해 탁월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다.<sup>40)</sup>

그러나 40여년에 걸친 5부작의 집필 과정이 시종일관 정확하고 치밀할 수만은 없었다. 《수필》은 18년 만에 완성되었지만 이후 집필 기간은 점점 단축되었고 《사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더구나 《사필》 이후는 동시에 《夷堅志》의 집필도 병행하면서 아들의 재촉에 떠밀려 완성한 것이라 《사필》과 《오필》은 앞부분만큼 정밀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기도 하다.<sup>4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학술필기의 우열을 평가할 때 《용재수필》을 척도로 삼을 만큼 그 가치와 위상은 공인된 부분이었다.<sup>42)</sup>

遂以入注。孔傳續《六帖》，采摭唐事殊有工，而悉載《雲仙錄》中事，自穢其書。《開天遺事》託云王仁裕所著，仁裕五代時人，雖文章乏氣骨，恐不至此。姑析其數端以爲笑。……此皆顯顯可言者，固鄙淺不足攻，然頗能疑誤後生也。

39) 《隨筆》권8<談叢失實>: 後山陳無已著《談叢》六卷，高簡有筆力，然所載國朝事，失於不考究，多爽其實，漫析數端於此。……蓋前輩不家藏國史，好事者肆意飾說爲美聽，疑若可信，故誤人紀述。後山之書，必傳於後世，懼詭千載之惑，予以辨之!

40) 《용재수필》제요: 宋人說部，著錄紛繁，大都摭異矜新，無關典據，惟洪邁《容齋隨筆》辨證名義，極稱精核，爲稽古者所資。

41) 耿文光，《萬卷樓精華藏書記》<跋洪邁容齋隨筆四筆自序>: 文敏以老年著書，取其速成，且意不屬此，徒爲稚子所迫，勉盈卷帙。故《四筆》、《五筆》不免抵牾，不如前三筆之精審。《용재수필》下，963쪽.

## (2) 객관적 역사 평가

《용재수필》에서 가장 많은 편목을 차지하는 것이 史論이다. 그는 30여년을 사관의 직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한서》를 읽은 그는 100번도 넘게 통독했을 뿐만 아니라, 구두점을 찍은 것만도 10권이 될 정도였다.<sup>43)</sup> 홍매는 역사에 대한 박학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공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사건과 인물을 재평가했다. 역사적으로 혹평을 받아왔던 인물의 가상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호인 이면의 포악한 면을 들춰내기도 하면서 보편적인 고정관념을 전복시키곤 한다.

예를 들면, 송대에 曹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론화된 것이었다. 길거리의 어린 아이들조차 유비가 불리할 때면 눈물을 흘리고, 조조가 패배하는 대목에서는 신바람이 난다고 할 정도로 적대시되었다.<sup>44)</sup> 그러나 홍매는 조조가 한 왕조의 반역자이자 간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조조는 한나라 조정의 반역자이긴 하지만 인재의 적절한 임명에 있어서는 후세 사람들이 따르지 못한다”<sup>45)</sup>, “조조와 사마사, 사마소는 간신이다. 이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군사를 움직일 때 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오명은 자신이 뒤집어 써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으니 누가 그를 위해 전심전력을 하지 않겠는가?”<sup>46)</sup>라며 조조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송대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역사적 평가의 잣대가 되는 義

42) 학술필기의 제요에서 《용재수필》과 비교하는 언급을 종종 볼 수 있다. 《猗覺寮雜記》의 제요는 “在宋人說部中，不失爲《容齋隨筆》之亞。” 《能改齋漫錄》의 제요는 “幾與洪邁《容齋隨筆》相埒。” 《考古編》의 제요는 “雖亞於《容齋隨筆》” 《賓退錄》의 제요는 “可爲《夢溪筆談》，《容齋隨筆》之續”

43) 《四筆》권11 <漢高帝祖稱豐公>: 予自少時讀班史，今六七十年，何啻百遍，用朱點句，亦須十本。

44) 蘇軾，〈東坡志林〉권1 <塗巷小兒聽說三國語>: 至說三國事，聞劉玄德敗，輿聲有出涕者；聞曹操敗，即喜唱快。(中華書局，1997)，7쪽.

45) 《隨筆》권12 <曹操用人>: 曹操爲漢鬼蜮，君子所不道，然知人善任使，實後世之所難及。

46) 《四筆》卷16 <曹馬能收人心>: 操及師、昭之姦逆，固不待言。然用兵之際，以善推人，以惡自與，并謀兼智，其誰不歡然盡心悉力以爲之用？

理史學이 주류가 되었던 시기이다. 송대에 사론과 사평이 유독 많았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의 소산이다. 의리사학이라는 송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조조는 점차 간신이자 배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홍매 또한 이러한 시대적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여 사론과 사평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개진했다. 그러나 홍매는 역사적 功過와 是非를 도덕적 잣대로 단순화하여 평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근거하여 선 이면의 악, 혹은 악 이면의 선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五代の 周 世宗에 대해서도 “일시의 현명한 군주라고 할 만하다. …… 그러나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살상을 지나치게 하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실책이었다”라며 薛居正의 《舊五代史》에 수록되어 있는 일화를 근거로 들었다.<sup>47)</sup> 歐陽脩의 《新五代史》는 삼강오륜과 천리가 무너진 오대를 오직 춘추의 의리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물의 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료는 대대적으로 삭제하면서 의리만 남고 사실은 사라진 사서가 되어버렸다.<sup>48)</sup> 일례가 바로 周 世宗이다. 설거정의 《구오대사》에 수록되어 있는 주세종의 실책을 《신오대사》에서는 현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두 삭제하였다. 五代的 後梁을 건국한 朱溫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주온은 당말 황소의 난을 평정하여 공로를 인정받고 조정으로부터 ‘준충’이라는 이름까지 하사받았으나 결국 당을 멸망시키고 後梁을 건국하였다. 구양수는 이런 후량에 대해 “아, 후량의 악은 지극하다! 도적으로 일어나 당나라를 멸망시켜 그 해악이 천하에 넘치게 되었다. 천하의 호걸이 사방에서 일어났으니 누가 그 가슴에 칼을 꽂고자 하지 않겠는가”<sup>49)</sup>라며 치를 떨었다. 그러나 홍매는 “후량 朱溫의惡에 대해서는 구양공의 《오대사기》에서 가장 질책하였다. 그러나 그가 세금을 감량한 일에 대해 《구오대사》는 기록하였으나 《신오

47) 《續筆》권4<周世宗>: 可謂一時賢主 …… 然考其行事, 失於好殺, 用法太嚴, 羣臣職事小有不舉, 往往寘之極刑, 雖素有才幹聲名, 無所開宥, 此其所短也.

48) 王鳴盛, 《十七史商榷》권93<歐法春秋>(上海書店, 2005), 865쪽: 且意主褒貶, 將事實壹意刪削, 若非《舊史》復出, 幾嘆無徵.

49) 《新五代史》권13<梁家人傳>第一序: 嗚呼, 梁之惡極矣! 自其起盜賊, 至於亡唐, 其遺毒流於天下. 天下豪傑, 四面並起, 孰不欲戡刃於其胸(中華書局, 1997), 127쪽.



대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 내가 조사해보니 실로 그러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sup>50)</sup>이라고 했다. 홍매는 천인공노할만한 악인이라고 해도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현인이고 성군으로 칭송받는 사람이라도 과오와 단점이 있다면 지적한다. 이에 대해 清代 고증사학의 대표자인 錢大昕은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적 인물의 선과 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홍매의 식견이 구양수보다 낫다고 평가했다.<sup>51)</sup> 송대의 역사는 《춘추》의 의리를 근간으로 한 도덕과 명분을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객관적 사실을 홀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기도 했다. 객관 사실과 근거를 학문의 핵심으로 삼았던 청대 고증학자들은 송대 의리사학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홍매의 實事求是적 학문 태도를 호평한 것이다.

### (3)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

홍매가 경전이나 문학 작품보다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은 거기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과 상황들을 통시적으로 연계시키고 과거의 역사가 그가 살았던 남송 당시로 끌어들여 현실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귀감으로 삼는다.

홍매가 태어난 3년 후, 송은 금이 남침하여 수도인 개봉을 점령하고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수치와 굴욕의 靖康의 난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북쪽 영토를 이민족에게 뺏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굴욕적 조약을 맺게 된다. 홍매는 정강의 난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사관으로 지내던 시절 《靖康實錄》을 편찬하면서 당시의 정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며,

50) 《三筆》권10 <朱梁輕賦>: 朱梁之惡, 最爲歐陽公《五代史記》所斥詈, 然輕賦一事, 《舊史》取之, 而新書不爲拈出, …… 予以事考之, 此論誠然, 有國有家者之龜鑑也.

51) 《十駕齋養新錄》권6 <五代史>: 周世宗之才略, 可以混一海內而享國短促, 填土未乾, 遂易他姓. 洪容齋以爲失之好殺, 歷舉薛《史》所載甚備, 而歐《史》多芟之. 容齋論史有識勝於歐陽多矣. 梁起盜賊其行, 事無可取, 而卒以得國, 容齋舉其輕賦一節, 此憎而知其善也.

오랑캐에게 남으로 쫓겨 내려와 구차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통탄했다.

陸贄가 德宗에게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로 천하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글을 내리도록 간언하였다. 비록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글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반란이 곧 평정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시대에 발생한 것이나 결과는 모두 같다. 송나라는 靖康, 建炎 연간의 반란이 참혹했다. 그러나 이처럼 의리으로써 백성을 감동시킨 말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그것은 왜인가?<sup>52)</sup>

초나라 소왕이 함려에게 패하고 망명하게 되었을 때, 한 고조가 함곡관에 들어가 約法三章을 약속할 때, 당나라 현종이 안록산의 난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덕종 시기 반란이 일어났을 때를 열거하며 도리에 맞고 정의로운 한 마디로 사람을 감동시켜 난국을 타계할 수 있었던 역사적 선례를 열거한 후 마지막으로 송의 반란과 비교하였다. 홍매는 종종 이렇게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 나열하고 마지막에 송대를 대조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비교는 지금의 시대에 대한 개탄과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의 왕조들도 강남 지역을 넘보지 못 할 만큼 東晉 왕조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홍매는 국정을 재상 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군사권은 각 지역의 대장군에게 일임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분석했다. 홍매는 이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다. “최근 내가 황제께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 황제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을 뿐”이라며 개탄하였다.<sup>53)</sup> 홍매의 역사 분석은 언제나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여타 학

52) 《續筆》卷6<大義感人>: 陸贄勸德宗痛自咎悔, 以言謝天下, 制書所下, 雖武人悍卒, 無不感動流涕, 識者知賊不足平. 凡此數端, 皆異代而同符也. 國家靖康、建炎之難極矣, 不聞有此, 何邪?

53) 《隨筆》卷8<東晉將相>: 頃嘗爲主上論此, 蒙欣然領納, 特時有不同, 不能行爾.

술 필기가 역사를 고증하고 분석하며 학문적 담론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용재수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의 도리와 처세, 나라를 다스리는 방략을 설파하고 있다는 점이 그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 5. 나오면서

清代가 되면서 《周易筭記》, 《詩經筭記》, 《四書筭記》, 《潛邱筭記》, 《廿二史筭記》 등 '筭記'를 제목으로 하거나 '차기'식의 학술필기가 대거 등장하였고 이러한 학술필기가 청대 고증학을 선도하게 된다.<sup>54)</sup> '차기'는 청대 학자들의 공부 방법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은 모두 '차기책자'를 가지고 있었고 독서를 할 때마다 심득이 있으면 이곳에 기록하였고 오랜 시간 축적되면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엮어 한 권의 저작으로 만들어냈다.<sup>55)</sup> 청대 고증학을 대표하는 역작의 대부분은 이러한 '차기'에서 만들어졌고, 그 시작은 홍매의 《용재수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56)</sup>

일반적으로 서정성, 무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산문 양식의 한 장르를 수필이라 한다. 그리고 그 용어를 처음 《용재수필》에서 사용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은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필과 《용재수필》의 글쓰기를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그러나 에세이로서의 수필이 목적과 의도가 없는, 작자의 내면을 향한 글임에 반해 홍매의 수필은 자신이 발견

54) 벤저민 엘먼 저,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예문서원, 2004), 353-386쪽.

55) 梁啓超, 《청대학술개론》(上海古籍出版社, 2000), 62-63쪽.

56) 梁啓超, 《중국역사연구법》(上海古籍出版社, 2000), 24쪽: 고증의 학문은 송대 유학자들이 그 처음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니 劉放과 洪邁 같은 이들의 책이 불만하다. 청대에 이르러 크게 성행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으로는 錢大昕의 《廿二史考異》, 王鳴盛的 《十七史商榷》, 趙翼之의 《廿二史札記》를 들 수 있다.(大抵考證之業, 宋儒始引其緒, 劉放、洪邁輩之書稍有可觀. 至清而大盛, 其最著者如錢大昕《廿二史考異》, 王鳴盛《十七史商榷》, 趙翼之《廿二史札記》.)

한 학문적 성과를 주변 사람들과 후학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분명한 학문적 지향점을 가진 글이다. 무심한 듯 ‘수필’이라는 겉사를 내걸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오직 객관적 근거로만 판단하겠다는 치열한 학문적 태도와 독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시종일관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해두어 후세에 알려주고자 한다”, “여기에 기록하여 학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등의 언급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 독자를 염두하고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진지하고 엄정한 학문과 자유롭고 가벼운 필기의 만남-그 형식은 唐代에 시작되었지만 이를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한 것은 송대 지식인들이었고,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용재수필》이었다. 물론 《용재수필》이 홍매의 서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당시 학자와 문인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용재수필》이 새로운 학문의 방법을 제시하고 보편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출판의 활성화라는 여건이 제공된 시대였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용재수필》의 출현은 학술필기가 하나의 유파를 형성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글쓰기이자 학문의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당대 주소학을 벗어나 송대 고증학의 성행을 선도함으로써 학문 방법의 전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 參考文獻 >

- 洪枚, 《容齋隨筆》, 中華書局, 2009.  
 脫脫 等, 《宋史》, 中華書局, 1997.  
 永瑒 等,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95.  
 王林, 《野客叢書》, 中華書局, 2007.  
 葉大慶, 《考古質疑》, 中華書局, 2007.  
 趙翼, 《廿二史劄記校證》, 中華書局, 2001.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江蘇古籍出版社, 2000.

王鳴盛, 《十七史商榷》, 上海書店, 2005.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上海古籍出版社, 2000.  
 벤저민 엘먼 저, 양휘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李菁, 《南宋四洪研究》, 武漢大學博士論文, 2005.  
 顧娟, 《洪邁史學綜論》, 山東大學碩士論文, 2008.  
 劉宇, <略論宋代的考據筆記>, 《江西社會科學》, 2011년 제12기.  
 김건곤, <한문학에서 '수필'의 개념과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36호, 1989.

< 中文提要 >

學術筆記這種形式是唐代開始的, 不過把它積極運用學問研究方面是宋代知識人試圖的。本稿以洪邁《容齋隨筆》爲主考察了宋代學術筆記的盛行背景, 以及探討了洪邁所說的‘隨筆’的意味與現代的‘隨筆’如何不同。宋代學術筆記的盛行背景考察了三個方面, 是宋代知識人的博學追求趣向, 出版印刷的空前發達, 議論的盛行。這三個方面的因素讓宋代知識人探索新的體裁, 筆記這種斷片條目、隨意的形式, 正符合了他們的學問需要, 因此導致了學術筆記的流行。本稿還探討了《容齋隨筆》的學問志向, 洪邁主要表現出糾正學問的謬誤、客觀的歷史評價、不脫離實際的學問態度。《容齋隨筆》的出現引起了當時文壇、學界的反應, 得到了廣範的歡迎, 不少知識人受到其影響, 導致了學術筆記的盛行。不僅如此, 清代考據學的盛行可以追溯到《容齋隨筆》。

關鍵詞: 學術筆記、讀書筆記、洪邁、容齋隨筆、隨筆、劄記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30.	2012. 11. 6.	2012. 11. 16.	2012. 11. 21.	2012. 11. 30.